

報 道 資 料

(Press Release)

·작 성 팀	조사연구팀
·담 당 자	이 은 정 연구원(Tel:3775-3711)
·보 도 일	2004. 4. 8(조간)
제 목	2004년 상장기업 주주총회 의안 및 결의내용 분석

1. 개요

- 12월 결산법인인 상장법인 559사를 대상으로 2004년 주주총회 의안 및 결의내용을 정리 및 분석

2. 분석결과요약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가속화

- 정관을 변경한 기업(280사) 중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총 158사로 나타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관변경안 중에서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배당 및 주식소각 관련 개선안, 주주권 제고 관련 정관변경안, 감사기능과 관련한 변경안 순으로 조사됨
- 정관변경안건(368건) 중 부결건수는 17건임
- 전반적으로 분기·중간배당, 자사주 소각제도 도입 등 주주이익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축 등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됨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데이콤 등 총 17사로 조사되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조항을 신설한 기업도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총 7사로 나타남
- 한편 경영에 대한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LG화학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하였음
- 또한 팬택, 현대종합상사와 같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성과가 아닌 경영진의 능력에 기인한 성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 기업들도 증가함

□ 주주권 제고 기업 증가

- 포스코와 SK는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했으나, SK의 경우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포스코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함
- 주주가 투표권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서면투표제를 포스코와 SK가 제안했으나 역시 포스코의 의안만이 가결됨

□ 주주중심의 배당정책 도입

- 현대중공업, S-Oil을 포함한 총 27개 상장기업이 분기배당제를 도입하였으며, SK텔레콤 등 총 18개 기업이 중간배당제를 도입함
- 한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소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소각 규정을 신설한 회사도 신한TS, 한국공항 등 총 20사로 조사됨
- 즉 배당가능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려는 주주중시 문화 형성

□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 대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또한 대구은행을 비롯한 총 8개 기업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경영권 분쟁 가열

- 전체 주주총회 의안(2,691건) 중에서 의안이 부결된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건이 이사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안건임
 - 현대상선은 회사측과 주주측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주측인 KCC의 의안은 부결된 반면 회사측이 추천한 후보가 선임되었고, SK의 경우에는 이사회추천의 사내이사 1인, 회사측과 소버린측이 동시에 제안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2인,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3인이 각각 선임됨
 - 쌍방울은 주주측인 대한전선과 회사측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측이 제안한 이사와 감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됨

□ 경영권 방어조항 신설

- 진흥기업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임원 등을 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함

2004년 주주총회 의안 및 결의내용 정리

1. 조사개요

- 조사내용 : 12월 결산법인인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04년 주주총회 의안 및 결의내용 정리
- 조사대상기업 : 12월 결산법인 중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과 “정기주주총회결의사항”이 공시된 기업 559사를 대상으로 함

2. 조사결과

□ 주주총회 의안 정리

구 분	의안 건수	의안가결/부결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	1,013	1,013/0
이사 선임 및 해임**	757	750/7
재무제표 등의 승인***	584	584/0
정관변경	280	271/9
주식매수선택권	21	20/1
외부감사선임	3	3/0
주식소각	4	4/0
기타****	29	29/0
합계	2,691	2,674/17

* 사내이사, 사외이사 보수 및 퇴직금

**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승인

**** 합병, 피합병, 회사분할, 액면미만발행, 액면분할, 자본감소, 자산매각승인, 주총운영 규정, 주식교환, 주식매수선택권 조정기준, 경영계약서, 경영목표, 사업계획승인, 업

중변경, 미공시에 해당하는 사안

- 전체 559개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은 총 2,691건으로 조사됨
- 이 중 이사 및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이 1,0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757건이고 정관변경은 280건으로 나타남
-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 757건 중 7건이 부결되었는데,
 - 현대상선은 회사측과 주주측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주측인 KCC의 의안은 부결된 반면 회사측이 추천한 후보가 선임되었고, SK의 경우에는 이사회추천의 사내이사 1인, 회사측과 소버린측이 동시에 제안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2인,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3인이 각각 선임됨
 - 쌍방울은 주주측인 대한전선과 회사측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측이 제안한 이사와 감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됨
-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기업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두산건설 등 총 21사였으며, 이 중 팬택은 의안이 부결됨
- 또한 삼성테크윈, 금호석유화학, 코오롱건설, 베네데스 4사는 내년 주총 전까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것을 결의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가속화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안)

구 분		기업수	변경 건수	가결/부결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안)		158	368	351/17
변경 내용	주주권리보호 관련 변경	55	80	76/4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변경	105	185	173/12
	경영과실배분 관련 변경	59	66	66/0
	감사기능 관련 변경	34	37	36/1

- 정관을 변경한 기업(총 280사) 중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58사로 나타남
- 전체 368건 중에서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경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주권 제고 관련 정관변경안은 80건, 배당 및 주식소각 관련 개선안은 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분기배당, 중간배당, 자사주 소각제도 도입 등 주주이익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축 등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됨

□ 주주권 제고 기업 증가

주주권 관련 정관변경(안)

구 분		기업수	변경 건수	가결/부결
주주권 관련 정관변경(안)		55	80	76/4
변경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	2	2	1/1
	서면투표제 도입	2	2	1/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방법 변경(전자문서로 가능)	37	37	37/0
	기 타	26	39	37/2

- 포스코와 SK는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했으나, SK의 경우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포스코만 집중투표제를 도입
- 주주가 투표권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서면투표제를 포스코와 SK가 제안했으나 포스코의 의안만이 가결됨
-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방법을 서면에서 서면 및 전자문서로 변경한 기업은 KT&G, LG-Caltex를 포함한 37개사로 나타남
- 한편 진흥기업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임원 등을 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

□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정관변경(안)

구 분		기업수	변경건수	가결/부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정관변경(안)		105	185	173/12
변경 내용	사외이사 비율 확대	19	19	17/2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	2	1/1
	사외이사 자격기준 조항 신설	7	7	6/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추천	2	2	2/0
	이사의 보고의무 강화	20	20	20/0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근거 마련	15	15	15/0
	기타	69	120	112/8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데이콤 등 총 17사로 조사되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조항을 신설한 기업도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총 7사로 나타남
- 동국제강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정관을 변경함
- 한편 경영에 대한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LG화학과 SK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하였으나, SK의 의안은 부결됨
- 또한 팬택, 현대종합상사와 같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성과가 아닌 경영진의 능력에 기인한 성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 기업들도 증가함

□ 주주중심의 배당정책 도입

배당 및 주식소각 관련 정관변경(안)

구 분		기업수	변경 건수	가결/부결
배당관련 정관변경(안)		59	66	66/0
변경 내용	중간배당제 도입	18	18	18/0
	분기배당제 도입	27	27	27/0
	주식 소각 규정 신설 및 개정	20	20	20/0
	주식배당한도 신설	1	1	1/0

- 현대중공업, S-Oil을 포함한 총 27개 상장기업이 1년에 네 번 배당하는 분기배당제를 도입하였으며, SK텔레콤 등 총 18개 기업이 중간배당제를 도입하는 등 배당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소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소각 규정을 신설한 회사도 신한TS, 한국공항 등 총 20사로 조사됨
- 즉 배당가능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려는 주주중시 문화 형성

□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감사기능 관련 정관변경(안)

구 분		기업수	변경건수	가결/부결
감사기능 관련 정관변경(안)		34	37	36/1
변경 내용	감사위원회 설치	3	3	3/0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 증가	2	2	1/1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2	2	2/0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임	12	12	12/0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8	8	8/0
	기 타	10	10	10/0

- 기존의 감사제도에 비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3사로 조사됨(태원금속, 현대DSF, 한미약품)
- 한편 KT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증가시켰으며, SK는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려 했으나 부결됨
- 대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또한 대구은행을 비롯한 총 8개 기업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보임